

# “공순이라 놀림받아도 가족 위해 일했죠”

### 광주여성가족재단 구술 채록집 ‘뺨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발간 1950~70년대 광주 방직공장 6인 여성 노동자의 삶과 역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방직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안 될 중심산업이었다. 광주에는 각각 ‘전방’과 ‘일방’이라고 불리던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두 공장이 방직산업의 중심이었다.



1999년 촬영된 전남방직.

기계인지 기계가 나인지 모를 정도였다. 그야말로 숨과 전장이었다. 그래도 기계에 보람이 된다는 생각이 고된 노동의 고통을 잊혀지곤 했다.

1953년 전남방직에 입사했던 고인선(1935년생)씨는 “방직회사 업무는 코피를 쏟을 만큼 고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오로지 가족을 위해 숨넘어와 씨름하며 열심히 했다. 힘든 회사 일을 끝내고 쉬는 때면 친하게 지낸 동생이 찾아와 나란히 누워 놀던 시간은 지금도 미소를 자아낼 만큼 행복했다”며 “첫 아이 만삭때까지 교대근무를 했고 퇴사했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생활고에 재입사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겪었던 생활고가 전남방직 근무보다 더 힘들었다. 가족들은 ‘그렇게 몸 바쳐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다’며 노고를 인정해주며 고마워한다”고 말한다.

“--//앞만 보고 고개숙이고//다람쥐 쳇바퀴 돌고 돌아// 굼은살 박힌 발바닥으로 굼은살 박힌 손바닥으로//굼은 땀방울 흐르고 흘러 겨드랑이 마저 짓물리고 나서야//소금꽃으로 피어났네//사지육신 뺨마디에서 진액까지 쏟아내고서야//

답장 밖으로 밖으로 탈출한 우리들//(중략)“온 몸으로 뺨 녹여 흘러 흘러 핀 소금꽃” 위시 ‘소금꽃’은 10년 넘게 일신방직에서 일했던 정미숙(1963년생)씨가 노동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시다. 시는 책의 제목으로 차용됐다.

책을 읽어가다 보면 궁핍했던 그 시절 여성 노동자들이 감내해왔던 노동의 시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어머니와 자매들을 만나게 된다. 또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해온 주체적인 역할이 줄곧 외면 받아왔다는 사실에 다가가게 된다.

이번 방직 여공들의 구술채록집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의 첫 기획이다.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구술채록과 집필은 광주여성구술채록단이 힘을 보탤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작업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고 역사화하는 일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기획으로 전통시장 여성상인 구술채록을 단행본으로 엮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글쓰기는 저항·혁명의 행동 ‘파친코’도 굉장히 위험한 책”

###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 전세계 33개국 번역 출간



“작가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글쓰기는 저항과 혁명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파친코’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위험한 책이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 이야기를 그린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재미교포 이민진(54·사진) 작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판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파친코의 독자들이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만 봐도 5천 년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며 “파친코가 위험한 책이란 것은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가 30년에 걸쳐 집필한 파친코는 2017년 2월 미국 출간 직후 화제가 됐다. 전 세계 33개국에 번역 수출됐고, 75개 이상 주요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한국에선 2018년 3월 출간됐고, 올해 3월 애플TV+ 드라마의 인기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최근 세 번째로 개정판이 나왔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에서 시작해 1989년 일본까지 100년의 역사를 다룬다. 한국전쟁과 분단 등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이니치’(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의 삶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선악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환기한다.

그는 소설이 주류 사회에서도 인기를 끈 비결에 대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유럽과 미국 독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인종차별, 계급, 문화적 제국주의, 식민지 등을 다루는데 19세기 영문학에서 많이 쓰인 스타일”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데뷔작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2007)을 언급하며 “정치·사회적인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 작가는 “파친코 출간 초기엔 독자의 99%가

아시아계와 관련 없는 백인과 흑인이었다”며 “한국 독자들이 내 책을 안 읽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걱정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한국 독자들이 북 토크에 와주고 편지도 써준다”고 말했다.

또 최근 3~4년 사이 한국의 젊은 독자들에게서 “인제야 엄마를 이해한다”,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이란 게 자랑스럽다” 등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한국 젊은이들이 ‘북클럽’을 만들어 삼촌과 이모, 할머니 등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참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3부작” 완결편 성격의 세 번째 장편 ‘아메리칸 학원’(American hagwon) 집필도 설명했다.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룬 내용으로, 이 작가는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의 학원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교육은 사회적 지위, 부와 떼어놓을 수 없는데 교육이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한국어로 “한국말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로”라며 미안해했고, “안녕하세요”라고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마지막엔 “많이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울먹였다.

/연합뉴스

# 광주성악콩쿠르 1차 예선 34명 통과... 13일 2차, 20일 본선

정율성의 음악과 예술혼을 알리고 신인 발굴을 위해 기획된 2022 광주성악콩쿠르가 1차 예선을 시작으로 열린 경연의 막을 올렸다.

지난 6일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과 종합관드림홀에서 개최된 1차 예선에는 모두 34명이 예선을 통과했다. 2차 예선은 오는 13일 진행되며, 본선은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1차 예선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가곡 중 1곡과 오페라 아리아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콘체르토 아리아 포함) 중 1곡 등 총 2곡을 자유 선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34명이 2차 예선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지역 출신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선에서는 정율성 가곡 중 12곡이 과제곡으로 지정돼 타 지역 참가자들에게 광주를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은 선착순 150명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이



2022 광주성악콩쿠르 1차 예선 경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가능하며 예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링크(<https://naver.me/G7KkW9T1>)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창업자 6500만원 지원 광주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 10개업체 선발...30일까지 접수

광주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관광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6500만원을 지원하는 ‘2022 광주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에서 관광사업으로 직접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예비 관광창업자(기업) 또는 7년 이내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모집분야는 ▲지역상생 전통 관광기업 ▲지역혁신 관광벤처·스타

트업 ▲ICT 기반 융복합 기술 관광기업 ▲예비 관광스타트업 등 4개 분야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65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기업뿐만 아니라 1차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사무공간을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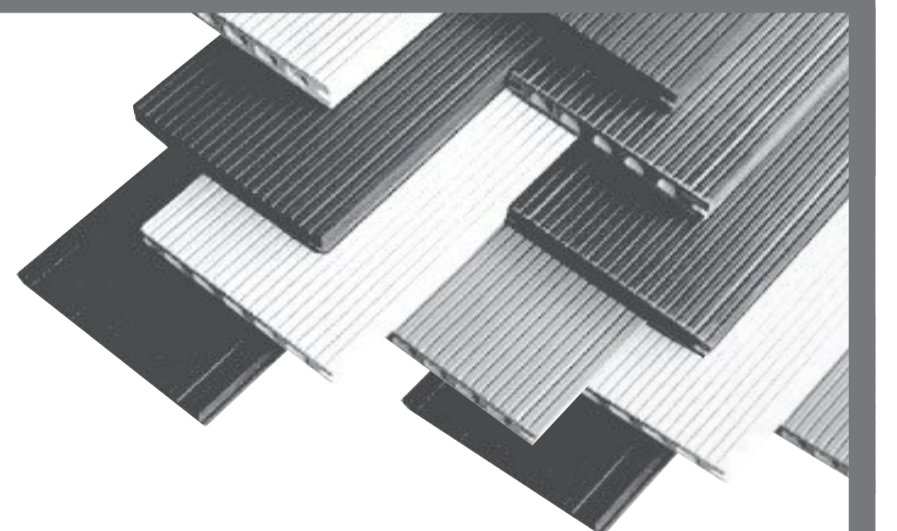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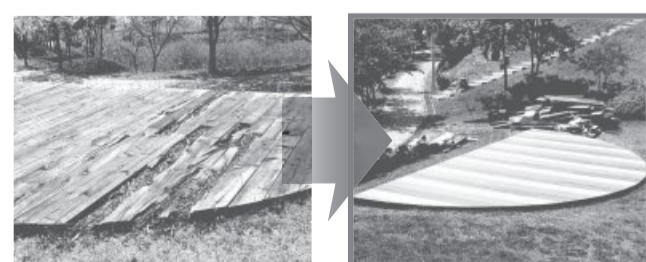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